



## 2년 앞으로 다가온 드루파2016 미래를 두드리는 ‘인쇄 & 크로스미디어’

드루파2016은 지난 5월 12일 인터팩2014에서 개최된 프레스 컨퍼런스를 통해 인쇄산업에서 성장하는 분야의 핵심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한 전략적인 콘셉트 조정을 통해 인쇄와 크로스미디어 솔루션 분야를 망라하는 글로벌 넘버1 전시회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드루파2016이 제시한 ‘미래를 두드리다(touch the future)’라는 슬로건은 미래기술 플랫폼의 구축과 인쇄산업의 혁신적인 성장 동력에 집중할 것임을 강렬히 제시하고 있다.

글 | 조갑준 기자 kjcho@print.or.kr

### 60년 이상 인쇄산업 트렌드 선도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베르너 매티아스 돈슈이트 메세뒤셀도르프 사장은 “드루파는 다른 전시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소규모의 지역 행사에서부터 국제적인 전문 무역전시회의 성격을 모두 갖춘 인쇄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특징이 있다. 트렌드와 혁신을 제시하고, 인쇄와 미디어 산업의 축적된 경험을 제공하며, 투자가 직접적인 생산력 확대로 연결되고, 비전을 현실로 실현시킬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라며 드루파의 독보적인 위상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 드루파는 60년 이상 노력하고 실험을 계속했으며,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결코 실패한 적이 없다. 드루파2016 역시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드루파가 이처럼 성공할 수 있었던 비밀은 트렌드 집합소, 활발한 홍보의 장, 잘 조직된 무역전시회 콘셉트 등의 세 가지 포인트로 압축될 수 있다.

### 혁신 기술 발달로 구조·방향 재조정

현재의 인쇄산업은 급격한 구조변화와 광범위한 통합을 경험하고 있다. 동시에 기능형인쇄, 인쇄전자, 3D프린팅과 같은 혁신적인 인쇄기술의 시장점유율은 크게 증가했으며, 이곳에 성장 가능성과 중요한 기회가 열려 있다. 아울러 산업생산 분야뿐만 아니라 디지털 프린팅, 패키징 및 라벨 프린팅 분야의 응용과 솔루션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돈슈이트 사장은 “인쇄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드루파의 구조와 방향을 재조정하는 것은 인쇄산업 주요 영역에서 진행되는 혁신적인 노력을 반영한 결과다”고 밝혔다. 또한 “파트너인 독일기계설비공업협회(VDMA)는 물론이고, 하이텔베르그, KBA, 콜버스, 만로 랜드웬시스템과 같은 몇몇 회원사와 붓스트, 케논, EFI, 깰루스, HP, 리코, 제록스 등의 글로벌 브랜드들과 함께 드루파의 제도약을 위한 콘셉트를 개발할 것이다”고 밝혔다.

드루파2016은 '인쇄 & 크로스미디어 솔루션' 전시회가 될 것이다. 인쇄와 크로스미디어 영역과 관련된 모든 기술 공정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응용 및 비즈니스 영역도 선보일 것이다. 혁신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나 최고의 활용 사례뿐만 아니라 기술과 응용을 목표로 하는 솔루션이 주목받을 것이다. 이에 따라 '인쇄와 크로스미디어 산업 넘버1'이라는 새로운 선언으로 기억될 것이다.

### 패키징 프린팅·멀티채널·그린프린팅

드루파는 지금껏 현재 상황에 가장 부합하는 시장성과 눈에 띄는 이슈를 제시해왔다.

디지털 라벨 프린팅을 포함하는 패키지 인쇄, 멀티채널 출판, 그린프린팅 등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주목받아 왔으며, 앞으로는 더욱 발전할 것이다. 아울러 각종 이벤트나 산업 타깃 분야에 대한 계획적이고 전략적인 활동에 따라 드루파의 콘셉트에도 많은 영향을 줬다.

이러한 변화는 드루파의 공식 로고에도 혁신적인 노력을 추가해야 한다는 요구를 더한다. 픽셀 로고나 레드 컬러와 같은 상징적인 부분은 유지하면서도 드루파의 새로운 콘셉트를 강조하는 이미지를 전달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 하이라이트 이슈는 미래 기술

'미래를 두드리다'라는 슬로건은 인쇄전자, 3D프린팅과 같은 미래 기술과 혁신적인 산업 분야에 강조점을 둔다. 이미 드루파

2012에서도 첨단 기술 시장이 소개된 바 있다. 이제는 이 기술이 드루파의 콘셉트에 포함될 정도로 성장했다. 이와 관련해 OE-A(Organic Electronics Association) 파트너, ESMA(Association in Europe for Specialist Printing Manufacturers of Screen, Digital and Flexo technology), PEPSO(Printed Electronics Products and Solutions) 브랜드 등이 협조 체제를 구축했다. 여기에서 논의되는 이슈는 현재 개발된 독보적인 콘셉트를 특별 전시회와 로드맵으로써 우선적으로 소개하는 문제였다. 2012년 첫 선을 보인 이래 PEPSO 브랜드는 글라스텍, COMPAMED, EuroCIS, K, EuroShop, 인터팩 등 6개 주요한 전시회에서 순차적으로 공개됐다. 이러한 진화는 인터팩2014에서 기능형인쇄와 인쇄전자의 발달 및 최신 트렌드를 선보이는 글로벌 브랜드를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드루파는 같은 맥락에서 3D 이슈를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3D fab + Print' 개념을 소개했다. 이는 독일 인쇄 및 종이 기술 협회와 관련된 VDMA에 의해 지원을 받았다. 이 분야는 부가적인 생산 수단, 부품의 생산, 의료 도구, 소모품 제조 등에서 관심과 활용도가 높다. 이에 따라 드루파2016에서도 Bright World of Metals, MEDICA, COMPAMED 등의 주제로 중앙 무대를 장식할 것이다.

한편, 7개로 계획됐던 드루파2016의 전시 카테고리에는 1. 프리프레스 및 인쇄 2. 프리미디어 및 멀티채널 3. 포스트프레스, 컨버팅, 패키징 프린팅 4. 미래 기술 5. 재료 6. 장비, 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 등 6개로 축소, 변경됐다.Ⓒ



1. 지난 5월 12일 인터팩2014에서 개최된 프레스 컨퍼런스 전경.
2.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드루파2016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베르너 매티아스 톤슈이트 메세뒤셀도르프 사장.
3. 드루파2016이 제시한 슬로건 '미래를 두드리다(touch the future)'

